

글. 정이숙_ Jeong, Yi-suk

(주)플랜티브 이사

이타미 준을 만나러 제주에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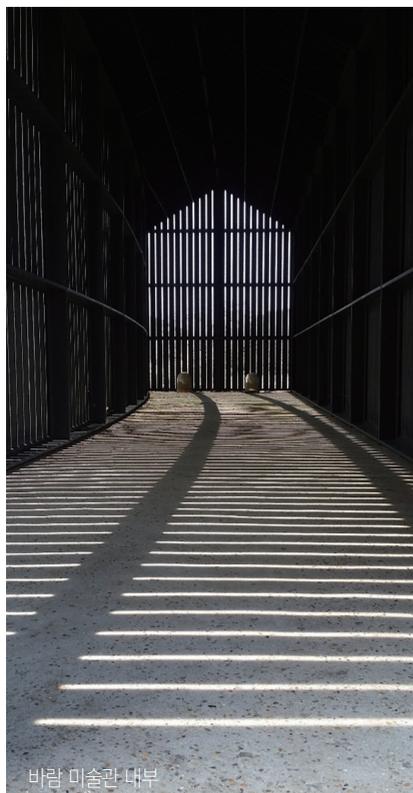
Went to Jeju to meet Itami Jun

작년 3월에 건축사지의 제주 지역 건축 특집을 위해 제주를 방문한 이후 꼭 1년 만에 제주를 찾았다. 꼬박 4일을 제주에 머물 예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 작정을 하지 않았다. 오직 재일동포 건축인 이타미 준의 물, 바람, 돌, 두손 미술관을 관람하는 일을 유일한 계획으로 잡았다. 작년 지역 특집을 진행하면서 제주 지역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둘러보았는데 재일동포 건축인 이타미 준의 미술관들을 빠뜨려서 내내 아쉬웠던 때문이다.

하지만 이타미 준을 만나는 일은 녹록치 않았다. 미술관이 자리 잡은 곳이 상위 1%를 위한 별장형 최고급 연립주택이라고 불리는 핀크스 비오토피아 타운하우스 정원 안이기 때문이었다. 상위 1프로는 꿈도 못 꾸는 서민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는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에 예약하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 했다. 그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비오토피아 레스토랑에 들러 피자와 우동을 먹고 미술관으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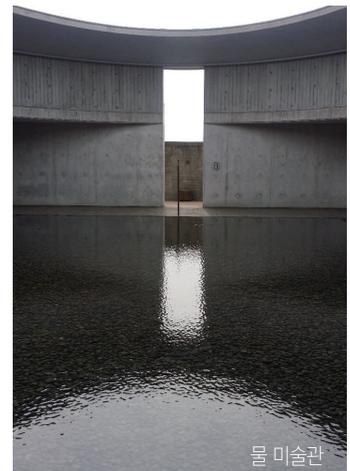
바람 미술관 외관



바람 미술관 내부

고급 주택 단지의 정원으로 조성되었다기 보다는 제주 중산간의 일부로 그냥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야트막한 언덕에 나무 집이 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람이 들어가고 나오기 쉽게 얇은 나무판을 빗살 모양으로 이어 붙인 집이었다. 바람 미술관이다. 안으로 들어서니 바람 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웅장하게 들린다. 나무판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쏟아진다. 잠시 돌의자에 앉아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 볼 수 없는 바람이 뺨을 어루만지고 '어떻게든 살아가라, 살아가라' 속삭인다. 바람 미술관에 다른 전시물은 없다. 순간순간 다른 소리를 내는 바람이 1년 365일 전시된다.

바람 소리를 뒤로 하고 물 미술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동그란 미술관 건물이 우주선처럼 보인다. 안으로 들어서니 지붕이 커다란 원형으로 뚫려 있고 바닥엔 네모 모양의 틀에 물이 담겨 있다. 작은 호수 같기도 하고 커다란 빨래터 같기도 하다. 바람에 물결이 일고 뚫린 지붕으로 하늘이 들어와 물에 비친다. 물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하늘 한 번 쳐다보고 물 한 번 쳐다보고... 어느새 하늘을 보는데 물이 보이고, 물을 보는데 구름이 보인다. 안과 밖의 경계는 지붕도 없이 겨우 얇은 벽 한 장인데 안에 있으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이곳의 풍경이 궁금해진다.



물 미술관



돌 미술관

다음은 돌 미술관이다. 이름에 걸맞게 입구에 손 모양의 돌이 턱 하니 놓여 있다. 안에 들어가면 통유리창으로 입구에 놓인 돌의 모습이 보인다. 미술관은 돌처럼 단단해 보이는 쇠로 지어져 꽉 막혀 있는데 꽃처럼 천장의 일부가 뚫려 있다. 하트 모양 쇠의 꽃처럼 보인다. 그 뚫린 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해의 위치에 따라 빛이 그리는 하트의 위치가 달라진다.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 거라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하트가 비추는 바닥에는 매끈매끈한 돌이 하나 놓여 있다. 저절로 어루만지게 된다. 부드럽고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 안에 오래오래 남는다.

돌 미술관 옆에는 두손地中 미술관이 산방산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전시물은 땅속 지하인 지중에 두는데 햇빛을 끌어들이는 커다란 창 때문에 지하가 어둡지 않다.

네 군데 미술관을 모두 둘러 보고 비오토피아를 빠져 나왔다. 비오토피아는 22만평의 대지 위에 4만평이 생태공원이고 고대 잉카문명의 마추픽추를 모티브로 하여 이타미 준이 설계한 townhouse 249세대와 120여채의 빌라가 한적하게 놓여 있는 고급 주거지 또는 별장지이다. 바로 옆에 역시 이타미 준이 설계한 방주교회와 또 다른 세계적인 일본 건축인 이타미 준이 설계한 본태미술관이 있다. 거장들의 건축물과 그것이 놓인 자연 공간 그리고 안에 담긴 전시물들을 보면서 돈이 많아서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언어놓으면 참 좋겠구나, 부질없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다.

비오토피아에 있는 이타미 준의 미술관들이 압도적인 감동으로 다가온 이유는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려 지어졌기 때문이다. 미술관들이 저마다 위치한 곳의 언덕과 풀, 나무들을 해치지 않고 겸손하게 서 있고, 하늘과 바람, 빛과 어둠을 전시물 자체로 활용한 때문이다. 그들을 보기 위해 항공료를 지불하고 비싼 밥값을 내고 하루 종일을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을 보면 건축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서울로, 일상으로, 번잡함 속으로 다시 돌아왔다. 돌아 오자마자 제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다시 제주에 갈 날을 꿈꾼다. 그 때 도 이타미 준을 만나러 물, 바람, 돌 미술관에 갈 것이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물·바람·돌 같은 자연을 공간 안에 컬렉트하는 것'이라는 그의 말을 떠올리며 물, 바람, 돌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고 올 것이다.



돌미술관의 외부 돌과 멀리 보이는 두손 미술관

여담 : 이타미 준은 1937년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쓰러지는 순간까지 도쿄 세타가야의 아틀리에 책상에 한일·일한사전을 올려두고 모국어를 잊지 않으려 했다. 그는 계속 한국 국적과 유동룡이라는 한국 이름을 고수했는데 데뷔작을 발표할 때 성에 쓰는 유(庾)라는 한자가 일본에 없어 활동하기 위한 이름을 이타미 준이라고 했다고 한다. 처음 한국 갈 때 이용했던 이타미(伊丹) 공항에, 친하게 지내던 작곡가 길옥윤의 마지막 한자 윤(潤·일본 발음 준)을 합쳐서 이타미 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2011년 타계한 그의 유해 절반은 아버지의 고향 경남 거창에, 절반은 그가 '제2의 고향'이라 말했던 제주 바다에 뿌려졌다.